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고린도후서 · 다니엘 · 갈라디아서
· 오바다 · 요엘 · 요나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고린도후서 · 다니엘 · 갈라디아서
· 오바다 · 요엘 · 요나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7월의 열정(熱情)



하늘 보좌를 버리실 그분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닿아서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행 7:2~4)

아니면,

기꺼이 연약한 육체 입으신 그분의 순종이

이부들로 하여금 배와 그물, 아비마저 버리게 만들었을까요?(마 4:22)

벌써부터 7월의 열기가 몸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를 몰아낼 주님의 열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심으로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다니셨던 그분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순결하신 마음과 순종.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옷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죄악의 불화살에 건디게 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주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2002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다니엘 서론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본 서는 예언 문학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책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의 통치자임을 거듭 밝힌다.

본 서의 제목 '다니엘'은 본 서의 중심 인물이자 저자의 이름인 '다니엘'을 따른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를 함유한다. 본 서는 자체적으로, B. C.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1:1) 최소한 고레스왕 3년(7:1; 8:1; 9:1; 10:1,2; 11:1)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저자임을 밝힌다. 8장에서는 다니엘 자신이 저작자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환상을 설명(8:1)하며, 9:2,20; 10:2은 '나 다니엘'이라는 1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를 밝히는 '감람산 강화(講話)'에서 본 서의 마지막 부분(9:27; 11:31; 12:11)이 다니엘의 작품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서의 기록연대는 아마도 바벨론 함락(B.C. 539년) 이후 고레스 9년(B.C. 530년)까지로 보인다.

본 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권자임을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탈탈한 후(왕하 25:12-17)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세계에 공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백성들은 엄청난 고뇌에 빠져 번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 신들과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밝히기 위해 일련의 기적과 권능을 소개하고, 미래의 역사 전개에 대해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 바사의 궁중에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능의 소유자임을 보이셨고, 포로 생활 속에서 굴욕감을 느꼈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 대한 징계가 이방인들에게 의해 여호와를 무시하는 빌미로 사용되자, 거짓 신들의 본거지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여호와만이 절대적인 주권자

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신 것이다. 본 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한 이 세상 제국들을 심판할 거대한 '뜨인 돌' (2:34, 35, 44), 참 다윗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속에 인간성과 함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드릴 지위를 결합하고 있는 '인자' (7:13, 14), 왕으로 오실 메시아(9:25, 26)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0:5-9은 다니엘이 이상 중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봄으로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계 1:12-16). 또한 다니엘은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고, 권세와 영광 가운데서 만민의 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7:13, 14). 이상과 같은 메시아 사상은 대단히 진전된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재림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신약의 교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분해

1. 서언: 배경(1장: 히브리어)

- 1)역사적 서론(1:1-2)
- 2)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힘(1:3-7)
- 3)소년들의 신실함(1:8-16)
- 4)소년들이 고위직에 등용됨(1:7-21)

2. 세계 열방의 운명(2-7장: 아람어가 2:4절에서 시작)

- 1)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신상의 꿈(2장)
- 2)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할 것을 명함(3장)
- 3)느부갓네살의 거대한 나무의 꿈(4장)
- 4)벨사살과 바벨론의 몰락(5장)
- 5)다니엘의 구원(6장)
- 6)다니엘의 네 짐승의 꿈(7장)

3.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8-12장: 히브리어)

- 1)다니엘의 양과 염소의 환상(8장)
- 2)다니엘의 기도와 70이레의 환상(9장)
- 3)다니엘의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환상(10-12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시기이며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2절). 이 중요한 때를 놓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3-10절).

긴급한 '구원의 날' 과 '은혜의 때' 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관용과 화해이고 또 하나는 성결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화해하지 못할 미움은 없습니다. 이 자비 앞에서 관용을 베풀지 못할 불신의 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11-13절). 그러나 화해와 관용이 있는가 하면 성도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분리가 또한 있습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의 죄악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분리의 의미가 불신자와 접촉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신앙과 교리에서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14-18절).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몸은 여전히 죄악 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결한 삶의 증거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가지면서 또한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2:4)를 전해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과 신뢰를 회복한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9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세상적인 근심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이란 육신의 불안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재물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려는 탐욕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신앙적인 근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근심이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근심이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근심이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오는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따르게 됩니다(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결한 삶에서 가능합니다(11절).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과 육 즉, 전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도 특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랑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구제를 위한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자세와 바울의 권유를 통해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호소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헌신적인 연보를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란 그리스 북쪽 끝 지금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뵤레아 교회를 가리킵니다(행 17:10-15). 이곳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벅차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헌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1-5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게는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것',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은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듯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기도 제목 / 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보다 자원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5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하며(6-11절),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를 위한 구제헌금은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일에 넉넉함을 주시고 착한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합니다(8절). 구제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10절) 많이 베풀수록 더욱 풍성하게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8-15절). 오늘날과 같은 물질만능의 사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며 이 시대를 지배하는 돈의 악령인 맘몬(Mammon)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앞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과 넘쳐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헌신하는 마음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주님께 바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인간적인 불신에서 신학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10-11절) 스스로 자랑하는 거짓된 교사들의 어리석은 행태들입니다(12-18절). 바로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도 하나같이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분께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7절). 그러나 그들은 그 권세를 교회의 일체성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일체성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8절).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3-5절). 사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앞세우는 교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18절).

오늘날의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처럼 다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으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앞세우는 일,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은 교회가 늘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할지니라(17절).

기도 제목 / 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있다는 말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짓 사도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연유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교회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요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사도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뱀에게 미혹된 이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3절).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4절).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거짓된 사도와 진실한 사도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꾀술의 역군'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세와 세력 유지를 위해 애쓰며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나 바울은 결국 그 행위대로 될 것(15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환상을 보았지만(1-4절)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자랑합니다(5-10절). 그리고 바울이 사도 된 표로 제시하는 것은 섬김과 사랑의 모범입니다(11-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7-10절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아프게 찌르는 것임을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는 어떤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세 차례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No!"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락(yes)과 "기다려라!" 그리고 안된다!(No)입니다. '안된다'의 응답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한다면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1-2절)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경고를 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책망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10절).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3, 4,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10절). 인간의 감정이나 화풀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은 교회의 화목을 위한 경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약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4절하)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회개를 촉구하는 단호한 경고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책망과 심판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때때로 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이나 징계를 통해서도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니엘은 B.C. 605년 제 1차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은 총명한 유대 소년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이 소년들이 가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부정한 동물의 고기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8절).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결단코 행치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을 귀하게 보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시험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놀랍게도 열흘 동안 채식만 했지만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 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15절). 그래서 마침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칭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환란을 무릎쓰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들이 세워야 할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 전달의 한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꿈을 꾸고는 갈대아 술사들에게 그 꿈 자체를 알아맞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6절).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고하지 않을 경우 다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1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이심으로 위기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더 높은 지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48,49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 주신 꿈은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및 그 이후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이 세상 만국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개개의 능력이나 우연에 의해 그 흥망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역사의 굴절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 꿈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2:46,47). 그러나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에 속한 관리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7절).

그런데 바벨론 왕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였습니다. 이들이 절을 하지 않자 이들을 미워한 갈대아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소함으로 왕 앞에 불러나가게 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절을 하도록 했으나 끝내 이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아도 결단코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16-18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믿음의 용사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연한 신앙적인 행동을 보면서 피상적인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나무에 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가운데 남겨두고 일곱 해를 지나는 꿈이었습니다(10-16절).

다니엘은 그 꿈에 등장한 나무가 창대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지만,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칠 년 동안 지낼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 질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22-27절). 과연 다니엘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31-33절).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교만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30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자량과 교만의 말을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요, 반역임을 지적하셨습니다(31절). 또한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드렸던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도 배치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2:47; 3:28).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처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 장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34절).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징계하시며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창조주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아들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시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사는 악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쯤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벨사살 왕은 선왕(先王)인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을 다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主宰)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22,23절). 본문 2절을 보면,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한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소 기명(器皿)들을 술잔 삼아 돌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궁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5절). 그 글은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이 되었는데,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26-28절).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제국의 기한과 멸망의 날 수를 정하심으로써 중국적으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대로 벨사살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31절).

하나님께서서는 비록 벨사살이 이방 왕이었지만 그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는, 온통 불신 세력들이 쳐 놓은 함정들과 죄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3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것을 어길 때에는 사자 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7절).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잡혀서 사자 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23절). 우리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산 다니엘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3절). 이 말은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10절).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 왔다면, 본 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부(1-14절)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후반부(15-28절)는 이 환상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매우 괴이(怪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네 번째 짐승이 이전 짐승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7절).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묻자, 천사는 그 네 짐승은 네 왕으로서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 주면서 세상에 대한 네 제국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18절). 그러나 그 때까지 성도들은 넷째 짐승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그 짐승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21절). 이 짐승의 핍박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는데(25절),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결정적으로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26절).

우리는 본 장을 통하여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력들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주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상을 주신 2년 뒤에 다니엘에게 두 뿔을 가진 수양과(3,4절), 그 뒤에 수양을 짓밟고 강성해지는 수염소의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5-7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가리키고, 수염소는 장차 등장할 헬라의 왕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20,21절).

본 장 22-23절에 보면, 수염소에게서 큰 뿔이 났는데, 그 뿔이 꺾인 후에 네 개의 뿔이 나왔다가 한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며, 네 개의 뿔은 알렉산더 사후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한 4명의 장군(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한 왕은 셀류쿠스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B.C.175-16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상에는 에피파네스는 교만하여 많은 무리를 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성전 제사를 폐하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 것이나(11,12절),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25절).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이 악한 왕은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얼마 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파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환상들은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고, 20-27절까지는 칠십 이레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상고하던 중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2절).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귀환의 약속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조국을 위해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3,4절). 다니엘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 온 것임을 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5,6,9,10,11절).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공홀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17-19절).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사건과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대 환란 때의 종말론적 사건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민족의 죄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민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푸른 그리스도의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여 불평을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쟁에 관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1절). 다니엘은 그 계시가 '유대 민족의 꺾박과 고난'에 관한 것임을 알고는 고령(高齡)임에도 안락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준 금식의 상태로 기도합니다(2,3절). 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5절)을 보내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 주었는데, 그 응답은 21일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한 첫 날부터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바사국을 지키는 악한 영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군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13,14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낙심치 말고 기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 36-39절을 통해 우리는 교만한 인생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왕은 신성 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36절). 이 말은 매우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교만한 왕은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38절).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이 오직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악이 자리잡게 되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니라"(잠16:9)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해 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해서 그것이 만족스럽게 끝났을 때 우쭐해 하면서 감사헌금을 바치는 이중적인 교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교만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악행입니다.

기도제목 / ① 어떤 일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를 가리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전 2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6,7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추어두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원리가 일관되게 강조되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크게 교리편(1-4장)과 실천편(5-6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교리편은 다시 복음에 대하여 다루는 1, 2장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3, 4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는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음을 버리는가(6절)? 다른 복음은 없다(7절).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4절). 1장은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더할 수 없이 완전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사변으로 꿰어 맞추려 한다가거나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에 억지로 맞추려 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복음은 하나이며(1-10절),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보존되어 모든 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11-21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에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영원불멸의 진리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 문화라는 그릇에 담긴 복음이 어떻게 전혀 왜곡됨이 없이 헬라 문화라는 그릇에 옮겨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문제를 중심으로 묵상해 봅시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교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 은혜로 받은 구원은 어디로 갔고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받아들일 때 타협해도 좋은 것이 있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11-13절을 읽고 신앙인의 외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삶의 기준이고 신앙행위의 길잡이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복음과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3장에서 전개됩니다. 십자가 구속의 확실성(1절), 성령 임재의 근거(2절), 성령 소멸의 원인(3절),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4절), 은혜의 근거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음(5절)은 복음의 절대성과 이신득의의 교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시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2:19). 율법에 메인 몸, 죄에 메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는 것 -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2:20).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뜻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흘러간 세월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내게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교만의 죄, 욕심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아집과 독선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1).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복음과 율법에 대한 두 언약의 역사적인 설명이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 (1-7절)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비유' (21-31절)가 나옵니다. 두 비유는 모두 율법의 제한성과 믿음(은혜)의 영원성 및 절대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은혜와 율법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대조시키면서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24절)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요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좇아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믿음을 떠나 인간적인 행위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언약'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메시아의 약속이요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광야에서 살 것이며 칼을 의지 할 것이라는 비참한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율법적인 생활, 세상적인 생활의 유혹에 빠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이나 생활은 단호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영원하고 인간의 공로는 한순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끊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은 갈라디아서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 강령입니다. 의롭다 함은 팔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13절), 성령을 좇아 행하라(16절)고 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7:20)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율법이나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나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령의 씨앗에서 자란 성령 나무가 없이 사람이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외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을 할 때 성령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24절)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열매가 나에게,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습니까? 혹시 살펴보아도 어느 것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면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낳마디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종합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14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2:2)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지식조차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다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죄용서의 길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다하여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합니다. 세상도 나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14절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와 안에서 살게 됩니다(15절)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일에 마음이 끌리니까?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17절). 나와 우리 가정에는 어떤 흔적을 가졌습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바다서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창25:25.26; 36:1이하)이 멸망당할 것과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 족속은 위기에 처한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시기하고 대적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로 세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의 재난을 방관한 것입니다(12,13절). 이것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돌아보지 않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하자 기뻐한 것입니다(12절). 마지막으로 에돔 족속은 대적인 바벨론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14절).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에돔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셨고(15절), 그 예언대로 에돔은 멸망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요엘서는 아고스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장은 메뚜기 재앙의 폐해를 자세하게 밝히는 전반부(1-7절)와 메뚜기 재앙의 결과, 인간의 회락이 상실되었음을 밝히는 중반부(8-12절), 그리고 재해를 종말론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 과 연관지어 해명하는 후반부(13-20절)로 나누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메뚜기의 침입은 곡식과 초목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9절). 이러한 재앙에 대해 요엘 선지자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성전에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8-14절).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들을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재앙에 비할 수 없는 철저한 멸망을 내리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요엘의 회개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고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리거든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지은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전장(1장)에 이어 본 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심각한 심판의 도래를 경고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8-27절에서 요엘은 여호와와의 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듣고 선지자의 권유에 따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므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그의 신부인 남 유다를 향해 쏟으시는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회개할 때, 남 유다 백성 전체가 구원받아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19절). 물론 이러한 현세적인 축복은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의 특권이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서 1:1-2:17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2:18-3:21은 축복과 희망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본 장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1-8절)와 심판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는 중반부(9-15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묘사하는 후반부(16-2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힘과 위로와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16-17절). 또한 그의 백성들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18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영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적들은 영원히 황무지로 쫓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겪을 것이나 마침내 승리하여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롬 8:18). 그러므로 비록 성도들은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로와 소망의 근거로 삼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나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등과 같이 B.C.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 반면, 요나는 이방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2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를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3,4절). 우리는 요나의 도피 계획 실패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바다와 바람 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막4:39-41). 마지막으로, 요나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칠 때 그 일이 내 고집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의해 계획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기본 진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생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맡긴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오늘날의 주의 만찬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마 26:20~30

*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물론, 3, 4단의 정경 부분에서는 힘이 필요하겠지요. (무거운 느낌이나 지치지 않게 느린 템포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빠르게 ♩ = 100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1. 주 예 수 해 변 서 떡 을 띠 사
2. 생 명 의 말 씀 인 나 의 주 여
3. 내 주 여 진 리 의 말 씀 으 로
4. 성 령 을 내 맘 에 보 내 서 서

이 부분은 가사의 운율이 바뀌는 곳이므로 무심코 가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박자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무 리 를 먹 이 어 주 심 갈 이
목 말 라 주 님 어 찾 나 이 다
사 술 에 주 매 인 날 풀 으 사
내 어 돈 영 의 눈 밝 히 시 사

음정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

반드시 점점 세게 찬송하여 정경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 생 의 양 식 을 나 에 게 도
해 변 서 무 리 를 먹 임 갈 이
내 맘 에 평 화 를 누 리 도 록
말 씀 에 감 추 인 창 진 리 를

정경, 힘차게

여기도 위의 틀 짜 단에서와 같이.

풍 경 히 나 누 어 주 읊 소 서
갈 림 한 내 신 영 채 우 소 서
영 원 한 생 영 을 주 읊 소 서
개 념 아 일 도 록 하 읊 소 서
아 엔

(스포르잔도 : 그 음을 특히 세게)

음정의 폭이 넓지만 음이 서로 이어지도록 찬송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8)

미국 뉴욕 맨체스터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 래드버리(M. A. Lathbury, 1841~1913)는 1877년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여 하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이라 칭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양식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리듬이 아니라 한 박자 한 박자 차분한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날에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교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적거나 없는 교회는 죽어가며 교회의 구성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성경공부나 기도모임, 성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중고생, 대학생 및 어린이 사역 등을 고안하고 계획합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은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날 여러분은 이 만찬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께 순종하며 메시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마태복음 24:20~30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20절~21절 - 한 사람

② 22절~25절 - 유다

③ 26절~28절 - 떡, 잔

④ 29절 - 새 것으로

⑤ 30절 - 감람산

2. 다음주일 설교('오늘날의 주의 만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첫 성찬'에 대한 단원을 읽고, 유월절과 성찬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② '영원한 성찬'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
- ③ '죽으심을 전하는 시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성찬의 식탁에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보다 죽으심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 ④ '죄의 삯이 지불되고'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 ⑤ '경건함으로 나아오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주의 성찬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결론)

1. 교회의 성례인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수께서 남기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에 담긴 뜻과 의미를 묵상하고 중요시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의 절기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실로 주의 만찬은 과거에 대한 표지이며 미래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의 식탁은 그의 죽으심과 천국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주의 성찬의 식탁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그러므로 성만찬은 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다른 것보다 고귀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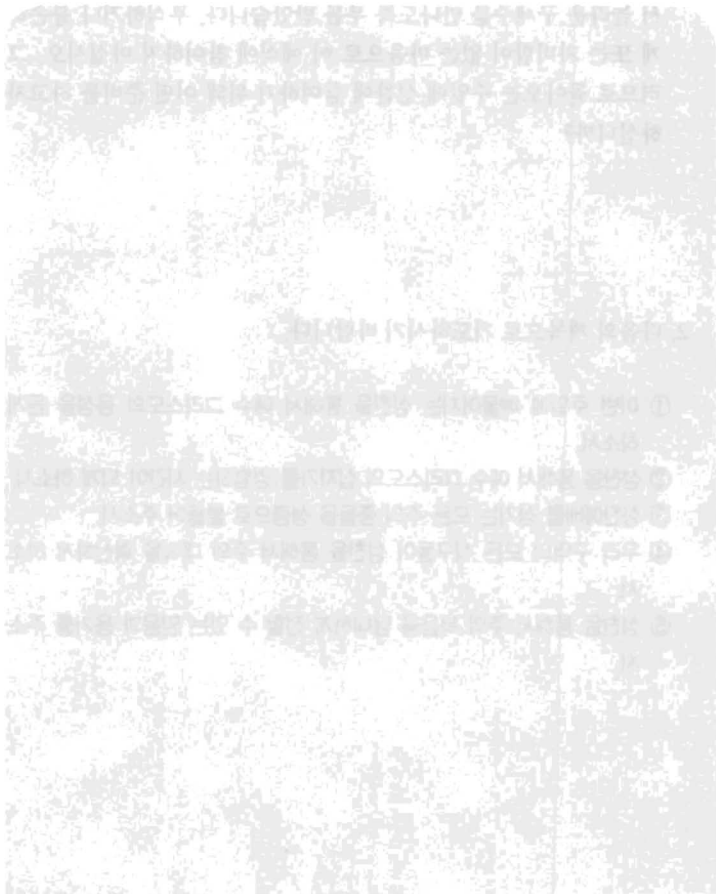
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사역과 예배로 가장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엄숙한 만찬에서 놀라운 구세주를 만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무식하거나 불손하게 또는 자비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하십니까?

2. 다음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번 주일에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③ 성찬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 ④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대속을 확신하게 하소서.
- ⑤ 성찬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제목 :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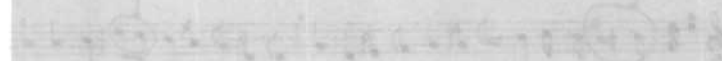


수월재 도스스

TS-SS21 명\문명, 4사도명 명사조 제정 TS\송장.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와와와 와와 와와와와 와와 와(와)와와와와 와와
와와와와와 와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제 2 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

• 찬송 / 210장(내 죄 사함 받고서) • 본문 / 렘 13:22~27

이 찬송의 지배적 리듬인 점음표(부점)입니다.

앞의 점8분음표(♪)는 길고 우아하게, 뒤의 16분음표(♩)는 짧고 탄력있게 노래합니다.

부점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



1. 내 죄사함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2. 주님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3.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밝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찬송하다보면 자칫 가사의 내용을 가볍게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끝까지 3박자를 힘있게 지속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조금씩 느려지면서
늘임표(페르마타)에 도달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느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간 저음이지만 강박이므로 분명하게
힘을 주어 노래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210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7)

이 곡은 찬송작가인 월터 스틸맨 마틴(W. S. Martin, 1862~1935)이 작곡하고 그의 부인인 시빌라 덜피 마틴(C. D. Martin, 1868~1948)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부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작사 작곡하며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 찬송은 특별히 고후 5: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체험케 된 삶의 변화를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번 창조되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벧전 1:18-19, 고후 5:17).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재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렇습니다. 죄인 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찬송의 리듬과 선율은 흥겹고 힘차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찌어다, 귀를 기울일찌어다, 교만하지 말찌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15절).”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와 양 무리가 서로 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17절). 유다의 자존심과 자만심은 그러한 길을 걷게 했습니다. 고집스런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계속적으로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바벨론 포로)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20-22절). 유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크신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23절).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23b). 이 말의 의미는 외적 본성(피부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내적인 본성(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돌이키기란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13:22~27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22절 - 죄악

② 23절 - 변할 수 있는노

③ 24절 - 흠으리로다

④ 25절 - 나를 잊어버리고

⑤ 26절 - 수치

⑥ 27절 - 화 있을진저

2. 다음주일 설교('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유다 백성의 완고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고하게 반응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
- ② '전적으로 타락한 ~'에 대한 단원을 읽고, 유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해 보십시오.
- ③ '스스로 꿈꿀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 보십시오.
- ④ '죄인을 향한 명령'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 ⑤ '죄인을 위한 능력'에 대한 단원을 읽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 ⑥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원을 읽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오면서

1.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한가지는 바로 '스스로'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신을 발견하거나 어떤 지고한 선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는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소서.
- ②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 ③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 ④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됨을 깨닫게 하소서.
- 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제 3 과

개인들에게 말하라

• 찬송 / 32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문 / 렘 18:1~12

한마디를 이와같이 두 박으로 해서 맑고 우아한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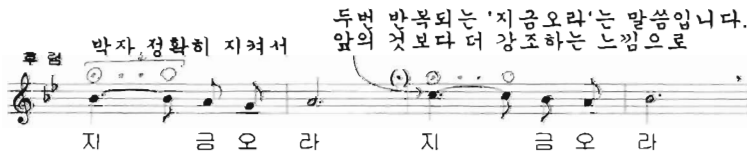
- | | | | |
|----------------|---------|---------|---------|
| 1. 자 비 한 주 께 서 | 부 르 시 네 | 부 르 시 네 | 부 르 시 네 |
| 2. 고 달 파 지 친 자 | 쉬 라 시 네 | 쉬 라 시 네 | 쉬 라 시 네 |
| 3. 주 께 서 지 금 도 | 기 다 리 네 | 기 다 리 네 | 기 다 리 네 |
| 4. 주 님 의 소 리 를 | 들 어 보 라 | 들 어 보 라 | 들 어 보 라 |

같은 가사를 3번 반복하여 노래하지만
매번 다른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곳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된 것이지요.
이점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찬송해 보세요.



한음 한음 정성껏

사	링	의	햇	빛	을	왜	버	리	고	정	정	더	얼	리	가	나
무	거	운	짐	진	자	다	나	오	라	쉬	게	해	주	시	리	라
죄	짐	을	가	지	고	다	나	오	라	어	서	주	앞	에	오	라
그	이	를	맡	는	자	복	받	으	리	어	서	곧	일	어	나	라



후렴 박자 정확히 지켜서

두번 반복되는 '지금오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것보다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지 금 오 라 지 금 오 라



힘차게 시작

권면의 감정을 담아서

자 비 한 주 께 로 지 금 곧 나 아 오 라

탄력있게 불러져야 할 리듬(짤~짜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32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이 찬송가는 해니 제인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 - 미국 뉴욕 주 태생의 저명한 찬송 작가, 시각 장애인)가 1883년에 작시하고, 같은 해에 조지 콜즈 스테빈스(George Coles Stebbins, 1864~1945 - 미국 뉴욕 주 태생의 저명한 찬송 인도자)가 ‘오늘 부르심(Calling Today)’이라는 제목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누가복음 9:57~62에서는 예수님을 좇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막상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시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오늘 이 찬송(찬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의 원제인 ‘오늘 부르심(Calling Today)’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려고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1절). 참 목자를 잃고 헤메는 양들은 분명히 지치고 고달픈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짊어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2절). 예수님께서 해결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짐을 들고 나오는 이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3절).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4절). 우리를 바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불러 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자비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각 자녀들에게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행로와 행사를 돌이켜 바꾸라고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생각해 본다면, 지구는 그에 비해서 먼지만큼도 안될 정도로 작고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보다도 훨씬 조그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각 죄인에게 내려오듯이 그분의 심판 또한 각 죄인에게 내려올 것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부터 돌아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주심에서 돌아서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헛된 말’이라고 판단한 유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18:1~1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4절 - 토기장이의 집

② 5절~6절 - 토기장이의 손

③ 7절~8절 - 돌이키겠고

④ 9절~10절 - 돌이키리라

⑤ 11절 - 선하게 하라

⑥ 12절 - 헛된 말

2. 다음주일 설교(‘개인들에게 말하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죄인에게 소망을 주신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소
망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②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151010월 · 돌아~돌라 ㉔

- ③ '지금 바로 돌아서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죄인이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151010월 · 돌아~돌라 ㉔

151010월 · 돌아~돌라 ㉔

- ④ '모두가 돌아서야 한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제외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151010월 · 돌아~돌라 ㉔

- ⑤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어떠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 ⑥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죄에서 돌아서서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151010월 · 돌아~돌라 ㉔

오시습보 1510월 15일 1510월 15일 1510월 15일

1.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반응은 참 다릅니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에 대해서 그저 사과만 할 뿐 행동은 전혀 돌이키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기 모습에 대해 회피하거나 우유부단하게 슬쩍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맺고 계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각 개인이 '돌아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각자가, 악한 길에서, 지금 당장,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 ③ 자신과 자존심의 길에서 예수께서 가신 길로 돌아서게 하소서
- ④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 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소서.

五의 첫 두부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和和和和和

五线谱及简谱对照表

江江音音 想相音音 阿合音 三三 伊音 也音

이제 이대로
이제 이대로


 唱 着 这 首 歌 儿 上 天 去 唱 着 这 首 歌 儿

제 4 과

부르짖으라

• 찬송 / 470장(내 평생에 가는 길) • 본문 / 렘 33:1~5

감정의 깊이로 가지고 불러져야 하는 찬송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가사를 죽 읽어보시고 뜻을 생각하시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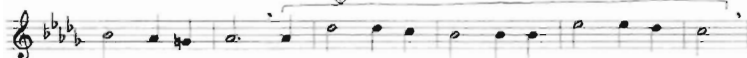
너무 느리지 않게



못갖춘 마디이므로 약박으로 시작해서 강박으로 이어지게

1. 내 평 생 에 가 는 길 손 탄 하 여 늘 잔 잔 한
2. 저 마 귀 는 우 리 를 삼 키 려 고 입 벌 리 고
3. 내 지 은 죄 주 홍 빛 갈 더 라 도 주 예 수 께
4. 저 공 중 에 구 름 이 일 어 나 며 큰 나 팔 이

길지만 끊지 말고 한숨에 찬송하면 좋습니다.



강 갈 든 지 큰 풍 파 로 우 섭 고 어 렵 든 지
달 려 와 도 주 예 수 는 우 리 의 대 장 되 니
아 뢰 이 면 그 십 자 가 피 로 써 다 씻 으 사
울 려 날 때 주 오 셔 서 세 상 을 심 판 해 도

조용하게



나 의 영 혼 은 늘 편 하 다 내 영 혼 —
글 내 싸 워 서 이 기 겠 네
흰 눈 보 다 더 정 하 겠 네
나 의 영 혼 은 겁 없 겠 네

점점 강조해 가며

뚜렷하게 노래.



평 안 해 — 내 영 혼 내 영 혼 평 안 해

‘내 평생에 가는 길’ (470장)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의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6).

호레이시오 게이트 스페워드(Horatio Gates Spafford, 1828~1888)가
이 찬송의 가사를 작시하게 된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 미국 무디교회의 회
계 집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였던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미시간
호숫가에 사업목적으로 지어 놓았던 별장들이 다 불타버리고 만았다. 그는 이
화재사건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된 아내의 요양을 위해 아내와 네 딸들을 여
행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여행 중 사고로 네 딸을 모두 잃고 부인만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비로소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얻게 되어 “It
is well with my soul - 내 영혼이 편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찬송시를 쓰
게 된 것이다. 곡은 필립 폴 블리스(Philip Paul Bliss, 1838~1876)에 의해
1876년에 작곡되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
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
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 그것은 무엇
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하건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속
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요일 2:15~17). 내 평생
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1절), 악한 마귀의 시험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2절),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
의 은혜로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주님(3절),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에 주
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맞아주
실 예수님(4절)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예레미야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왕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되더라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낙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소중한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금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의 고난이 두 배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 배로 자주 방문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말씀은 지금 낙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격려를 받기 위해 이 말씀을 함께 배워봅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33:1~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
- ② '모든 일에 대해 부르짖으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는 자가 기도해야 할 '모든 일'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창 12 - 창 15

- ③ '신실하신 응답에 대한 확신'의 단원을 읽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창 15 - 창 18

- ④ '놀라운 응답에 대한 기대'의 단원을 읽고,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창 18 - 창 22

- ⑤ '주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본받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겹세마네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해 보십시오.

창 22 - 창 25

창 25 - 창 28

- ⑥ '주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본받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십자가상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해 보십시오.

창 28 - 창 31

창 31 - 창 34

1. 예레미야 33:3 말씀은 기도에 힘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절을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 구절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의식주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는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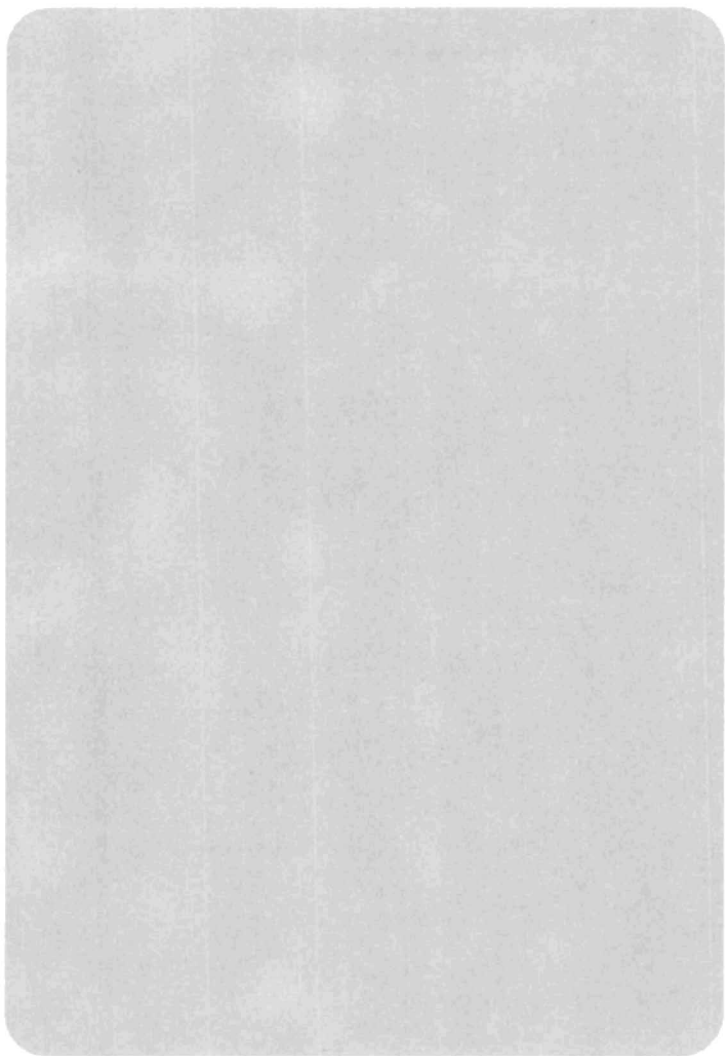
- 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게 하소서.
- ② 죄악이 내게서 떠날 것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소서.
- ③ 장차 닥칠 심판의 날을 깨어서 부르짖게 하소서.
- ④ 핍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 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진정으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제목 : 동산의 정경

본문 :

이제 다스려주시옵소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찬양하오. 아버지께
 귀하의 이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
 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1.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①
 2.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②
 3.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③
 4.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④
 5.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때에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紅毛牌紅豆粉

紅毛牌紅豆粉

紅毛牌

紅毛牌

紅毛牌

紅毛牌

紅

紅毛牌

紅毛牌

紅毛牌

紅毛牌 紅豆粉 紅毛牌 紅豆粉

紅毛牌 紅豆粉 紅毛牌 紅豆粉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7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8, 22-28일), 이성욱(9-21, 29-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6-1 전화 552-8200) [비매품]
